

오늘의 기사관

지구촌 딸들의 문화사랑방 개강식 오전 10시 광주 빙고교육국악전수관

행사 (30일)
▲지구촌 딸들의 문화사랑방 개강식=오전 10시 광주 빙고교육국악전수관.
(31일)
▲제8회 한·중 IT 포럼=오전 10시30분 영암군 현대삼호호텔.
▲선진 지방자치 지역포럼=오후 2시 광주시청 중회의실.
▲서구 음식인 맛사랑 경연대회=오후 5시30분 광주서구문화센터 소강당.
▲지역주민 화합 한마당 축제=오후 3시30분 광주시 우산종합사회복지관.
공연
▲전남과학대 음악과 제14회 정기연주회=30일(월) 오후 7

시30분 (재)5·18기념재단 민주홀.
▲일곡 동아리 발표회=31일(화) 오후 8시30분 일곡도서관 중앙홀.
▲10월의 마지막밤 음악 콘서트=31일(화) 오후 7시 광주서구문화센터 2층 공연장.
▲10월의 마지막밤 음악 콘서트=31일(화) 오후 7시 광주서구문화센터 2층 공연장.
▲10월의 마지막밤 음악 콘서트=31일(화) 오후 7시 광주서구문화센터 2층 공연장.
▲10월의 마지막밤 음악 콘서트=31일(화) 오후 7시 광주서구문화센터 2층 공연장.

▲이영식 개인전=11월1일까지 무등갤러리 별관.
▲시화 공예전=31일까지 자미갤러리.
▲이치현 도예공방전=30일까지 무등갤러리 본관.
▲목도회전=31일까지 북구청갤러리.
▲사진으로 떠나는 가을여행전=31일까지 광주시 향토문화회관 3층 오월문학관.
▲손봉채전=11월 1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혼자보기 아까운 사진전=31일까지 일곡갤러리.
▲광주비엔날레 기념 '손아유전'=12월 3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2층.
▲타향속에 삶과예술=11월 14일까지 의재미술관.
▲동양척식회사 복원기념 특별사진전=목포시

중앙동 2가 6번지 구 동양척식회사. 목포시가 수집한 사진 200점 전시. 올해 말까지.

역사속의 오늘

▲적십자의 아버지인 스위스 인도주의자 알리 뒤낭 세상 떠남(1910)
▲나주역 사건, 광주 항거 시작(1929)
▲미국, '화성인 습격했다' 대소동(1938)
▲제네바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결(1947)
▲가입전화 1천만회선 돌파(1988)
▲영국-프랑스간 해저터널 관통(1990)
▲서울 국제무역박람회 개막(1990)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정몽헌 현대전자 회장, 평양에서 김정일 면담 (1998)
▲인천 호프집 화재로 중·고생 등 56명 사망(1999)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 첫비행 성공. 초음속기 보유 세계 12번째(2002)

뉴스퀴즈

36. 1960~70년대 국내 프로레슬링계를 품이었던 '박치기왕'이 최근 별세했습니다.
지난 1957년 역대단체육관에 입문하며 레슬링을 시작한 이 사람은 호쾌한 박치기로 거구들을 쓰러트리며 전 국민을 흥분시켰던 인물입니다.
지난 1963년 세계헤비급챔피언에 오르는 등 당시 최고의 인기와 전성기를 누리며 프로레슬링계를 주름잡았습니다.
고흥이 고향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김일 ②역도산 ③이왕표 ④안토니오 이노기

참여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삼전자 고급 진공정수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함께 풀어봅시다 < 2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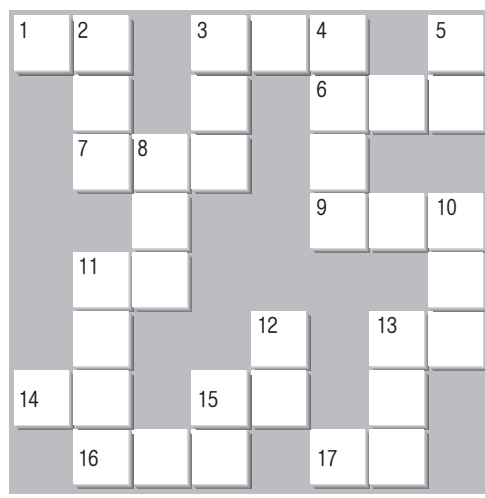
→ 가로풀이

1.범죄가 생기기 않도록 미리 막음. ~ 초소. 그들은 야간에 ~ 활동을 하고 있다. 3.깊은 밤을 이르는 말. 또는 밤 열두시를 전후한 때 깊은 밤을. 6.조선 숙종 때에 문인 김만중이 지은 장편 소설. 육관 대사의 제자인 성진이 양소유로 환생해 여덟선녀의 환신인 여덟 여인과 인연을 맺고 입신양명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나 깨어 보니 꿈이었다는 내용이다. 7.금책을 밝히지 않고 종이에 써서 봉하여 주는 상급,격려금 등을 이르는 말. 대통령이 ~을 하사하다. 9.방송국에서 TV 오락 프로그램을 지켜보면서 반응을 하거나 법정에서 재판과정을 지켜보는 사람을 말한다. 11.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 신유년에서 임술년에 걸쳐 정치의 ~은 극에 달했다. 13.적게 먹는 일. 14.영양 과잉이나 운동부족 때문에 전 군더더기 살.

15.환갑의 이듬해. 또는 그해의 생일. 환갑 ~ 다 지난 노인. 16.얼음과 눈덩이로 만든 에스키모의 집. 17.아껴어 줄임. 제품의 원가를 ~해야 한다.→절약.

↓ 세로풀이

2.도로 교통법 등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과하는 벌금. 좌회전 금지 차선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교통경찰에게 걸려 ~을 물었다. 3.제주도 특산 산품종 감귤을 이르는 말. 기존 감귤보다 크기가 훨씬 크고 맛이 매우 좋아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4.못사람의 말을 막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지껄임을 이르는 말. ~으로 떠들어 대다. 5.좋은 징조의 꿈. 어젯밤에 돼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을 꾸었다.→상몽. 8.일의 한 단계를 끝냄. 까다로운 교섭도 양측의 양보로 사실상 ~했다. 10.문제의 답을 선택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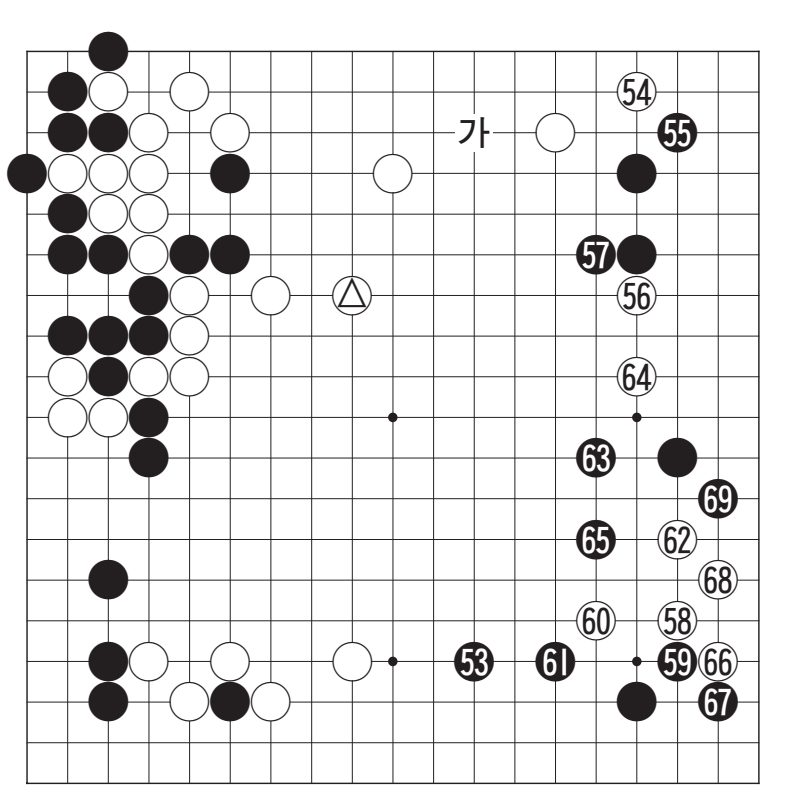
<함께 풀어봅시다 224회 정답>

였다. 15.야구에서 주자가 다음 베이스로 나아가는 일.

▲지난주 정답자
이경자·광주시 북구 용봉동
정대범·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 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으로 고를 수 있도록 몇 개의 보기를 주고 보기 중에서 답을 고르도록 하는 시험방식.→주관식. 11.자기 고향이 아닌 고장에서 사는 일. 12.죄인이나 피의자의 행동이 자유롭게 못하도록 양쪽 손목에 걸쳐서 채우는 형구. 13.남에게 따돌림을 당하여 멀어진 듯한 느낌. 친구들이 떡볶이를 먹으러 가면서 그녀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자 그녀는 ~을 느



바둑소식
오규철, 5연패 뒤 첫승
부산 파크랜드의 오규철 9단이 5연패 뒤 귀중한 첫승을 올렸다. 오규철 9단은 지난 28일 바둑TV 스튜디오 열린 한국바둑리그 13라운드 경기에서 광주 kixx의 홍민표 5단을 229수 만에 흑 불계로 꺾었다. 오 9단은 이날 호방한 포진으로 밀그림을 그린 뒤 중반 이후 맹공을 퍼부은 끝에 최근 5연승을 달리던 홍민표 5단을 제압했다. 이어 열린 대국에서 파크랜드의 강동윤 5단이 kixx의 박정성 9단을 198수 만에 백 불계로 제압했다. 강 5단은 이대국 승리로 10승3패를 기록, 다승 1위로 도약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제15회 光日盃
무거운 수 4보(53~69)
백 유흥주 5단 <KT전남본부>
흑 박광주 5단 <포스코>
백 ㉔로 지켜 좌상쪽의 첫 전투가 일단락이 됐다. 이 결과 흑은 선수로 좌편 일대에 40집에 가까운 집을 만들었고 백은 후수로 30여집이 됐다. 백 쪽에는 '가'의 침입수도 남아 있어 첫 전투 결과는 흑의 관성승이다. 흑 53이 또한 우편의 '중국식 포석'과 어울리는 요소로 박광주 5단이 한껏 기세를 올리고 있는 장면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30일(음 9월 9일 壬辰)
36년생 충의 불련사가 발생한다. 48년생 문서 직업으로 인해서 고역으로 불안하다. 60년생 무리수로 과감하게 진행하라. 72년생 태에 의한 사인과 손재가 우려 된다. 84년생 재사가 지체되고 결과를 얻지 못한다. 행운의 숫자 : 11, 25
37년생 괴로움이 측근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다. 49년생 침체될 우려는 있으나 종래는 안정 된다. 61년생 신사 투자에 손재가 크니 신중하라. 73년생 친구 친척 간에 호사다마다. 85년생 침착하게 서행하라. 행운의 숫자 : 05, 34
38년생 빈 문서로 눈물이 걱정된다. 50년생 과욕과 어리서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좋을 것이다. 62년생 재사가 손조롭게 합성되리라. 74년생 예기치 못한 억측이나 손실은 있으나 걱정은 없다. 행운의 숫자 : 14, 29
39년생 중직하는 형상이고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수선하다. 51년생 부부 및 주변으로부터 새로운 길사가 계속된다. 63년생 결과의 의중처럼 좋은 하루다. 75년생 융합할 듯한 주머니 대고를 발생시킨다. 행운의 숫자 : 17, 40
40년생 申이 나타나서 申을 해결하게 된다. 52년생 가정과 配인의 불련사가 발생할 수 있고 사기가 걱정된다. 64년생 부부사이에 얼굴 붉힐 일이 많을 수도 있다. 76년생 백사가 손조롭다. 행운의 숫자 : 03, 32
41년생 스스로 自離하는 격이요. 65년생 부부사이에 이간질할 미운 사람이 나온다. 53년생 이해하는 선감이 필요하고 부부간 절대 믿고 대화해야 하리라. 77년생 절제 속에 살리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9, 38
42년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54년생 중인의 잘못으로 그 책임이 나에게 전가되는 형상이다. 66년생 사기꾼이 주변에 많으니 주의하며 보내라. 78년생 내 것 잃고 손사 당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8, 34
43년생 아내가 시끄럽고 어수선한 현상이 발생한다. 55년생 전하위 복이나 번동으로 길사가 전개된다. 67년생 예인과 이성교제가 있을 수도 있다. 79년생 특별한 절조자와 좋은 인연이 된다. 행운의 숫자 : 12, 30
44년생 부부사이에 불련함이 나타날 수도 있다. 56년생 신념과 중도를 살려가며 배사에 신중하라. 68년생 사기 도난의 손재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80년생 밝은 마음으로 주변을 편하게 할 수 있으나 과거는 금물. 행운의 숫자 : 21, 43
45년생 대 발전을 약속하고 가속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는다. 57년생 큰 득은 좋은 마무리이다. 69년생 확신이 없는 투자는 삼가야 하리라. 81년생 혼분리라도 과욕하면 결과는 대 손해보 나타낸다. 행운의 숫자 : 08, 39
46년생 용이 예의를 놓고 싸우는 형상이니 스스로 패한다. 58년생 하루를 조심조심 보내라. 70년생 시비 송사 구설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82년생 과욕만큼 얻을 수 있는 손재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7, 42
47년생 송사가 생겨도 승전으로 연결된다. 59년생 거주주 보내는 날이 될 수도 있으니 활동하라. 71년생 회비가 없길리는 하루니 선 택을 심사숙고하라. 83년생 매사에 조심을 다해도 불만스럽게 꼬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0, 41

굿모닝 잉글리쉬 <762> 오하이오 니혼고 <762> 니하오 풍구워 <480> 한자 이야기 <380>

first thing tomorrow morning
내일 가장 먼저
A: OK. See you later.
B: Yes. I'll give you a call first tomorrow morning.
A: Please do. Take care.
B: You, too.
A: 알았어, 또 보자구.
B: 그러지, 내일 가장 먼저 전화할 게.
A: 응, 그래. 잘 가!
B: 자네도 잘 가!
See you later. : 안녕!
- 전화로 말하다가 '안녕'이라고 말할 때는 Talk to you later. (the) first tomorrow morning : 우선 첫째로: 중요한 것부터 먼저
- I'll come to see you first thing tomorrow. (나는 내일 우선 첫째로 너를 보러 올 것이다.)
give a call : 전화하다
Please do : 그렇게 해
Take care. : 조심해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バイト情報紙(じょうほうし)見てみれば?
아르바이트 정보지 보면 되잖아
A: 週三日(しゅうみっか)ぐらい□(はたら)けるとこないかな?
B: バイト情報紙(じょうほうし)見てみれば?
A: 今週號(こんしゅうご)出て?
B: さあ
A: 주3일 정도 일 할 수 있는데 없을까?
B: 아르바이트 정보지 보면 되잖아
A: 이번 주 것 나왔어?
B: 글썽
くらい: ~정도
さあ, わからない: 글썽, 모르겠어
さあ, 行こう: 자야, 가자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 wo.to ☎ 228-2545

不像話
하는 짓이 말이 아니다
A 不孝親(ふこうしん)
B 他早就走了(たけぞうし)
A 真不像話(まふなうわ)
B 他從來沒有進取(たけぞうし)
A 他從來沒有進取(たけぞうし)
B 他從來沒有進取(たけぞうし)
A 他從來沒有進取(たけぞうし)
B 他從來沒有進取(たけぞうし)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高麗(고려)
높을 고, 고을 려
고려(高麗)라는 국명(國名)에서는 고구려(高句麗) 정신을 계승하여 북방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왕건(王建)은 공예를 몰아내고 주저 없이 태봉에서 고려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또 연호(年號)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해의 차례를 나타내기 위하여 붙인 칭호)도 중국식을 차용하지 않고, '하늘이 내려주었다'는 의미의 '천수(天授)'를 사용하였다. 고구려의 주체성(主體性)을 계승하여 자주(自主)를 표방하였다.
나아가 역대 임금의 시호(諡號)에도 제후국이 사용하는 '왕(王)'자를 붙이지 않고, 황제의 격식에 맞추어 '조종(祖宗)'을 붙였다. 조(祖)는 국가를 세우거나 위기에서 구제한 임금에게 붙이고, 종(宗)은 국가를 잘 지켜낸 군주에게 붙인다. 나라를 세운 왕건을 태조(太祖), 그 다음 군주들을 혜종(惠宗)·정종(正宗)·광종(光宗)등으로 불렀다. 또 926년 발해가 거란족에게 망하자, 왕건은 발해의 벼슬아치와 백성들이 고려로 오도록 유도하여 서북지역에 거주하게 하였다. 이는 서북쪽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란에 대한 대비책과 더불어, 고구려의 옛 땅을 다시 찾겠다는 왕건의 의지가 엿보이는 북진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한에원(韓睿媛)>
조선대학교 교직원연구원 ☎ 230-6505